##동국대238호 2016.5.20 15:17 페이지1

東國大同窓會報

발행인 : 전영화 편집인 : 이계홍 100-718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12 백상빌딩 302호 T. 02)733-0303, 02)733-3991~3 인쇄 : (주)한우리SJM

2016년 (단기 4345년) 5월 19일 (목) http://dongguk.info 제238호

원로 고문단 회의

합법적 동창회 흔드는 행위 절대 안된다

"현 전영화 회장 중심으로 총동창회의 희망을 창조해달라"



▲ 사진 왼쪽부터 송석환, 원용선, 김희형, 심경모 고문.



▲ 사진 오른쪽부터 이석용, 정재철, 이민휘, 류주형, 조희영 고문.

총동창회 원로 고문단은 "지금의 전영화 총동창회장 체제는 법적으로, 정서적으로 정당하다"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어떠한 행위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본 총동창회 고문단 회의가 5월19일 아침 앰배서더호텔에서 11~16대 총동창회장을 지낸 정재철 (49/52정치, 새누리 상임고문) 고문을 비롯 11명의 원로들이 참석한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이민휘(52/56정치, 전 미주한인회 총연합회장), 류주형(53/57농학, 21~22대 총동창회장), 이석용(54/58정치, 전 대한손해보험협회장), 김희형(56/60정치, 해외민족연구소 감사), 심경모(57/61영문, 함경남도장학재단 이사장), 원용선(59/63영문, 23대 총동창회장), 조희영(59/63경영, 전 전국대학원협의회장), 송석환(64/68농경, 송설당교육재단 이사장) 고문과 전영화 총동창회장, 오진모(57/61법학, 한국관광개발원장), 법타스님(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위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고문단을 대표한 정재철 고문은 인사말에서 "더이상 긴 이야기가 필요없다. 법치국가에서 법에 따른 정당한 동창회를 부정할 수는 없다"며 "전영화 회장이 소신을 가지고 모교와 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민휘 고문은 "그동안 이연택 회장과도 몇 차례 만나 동창회는 후배들에게 맡기고 원로로서의 역할이나 잘하자고 설득했으나 말과 행동이 다른 불통이었다"며 "이제라도 다 내려놓고 모두 한마음으로 나아가는데 동참해주길 바랄뿐이다"고 아쉬워했다.

류주형 고문은 "동창회가 하루빨리 원만하게 정리되어야 한다는데에 대해 이의가 없다"며 "장기화되면 학교, 동창회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원용선 고문은 "법원 판결에 따라 합법적으로 탄생한 현 회장 체제를 부정해서는 안된다"며 "소송이나 걸고, 장학회를 볼잡고 있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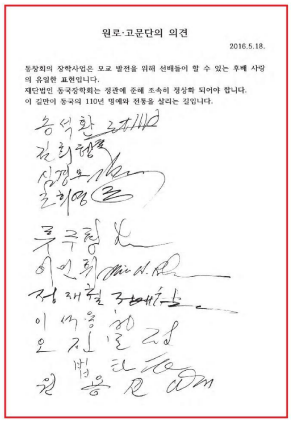
이석용 고문은 "일부 극소수 동문들이 총동창회를 흔들고 있으나 이미 대세는 전영화 회장체제로 완전히 기울었으므로 논란은 의미가 없다"며 "원로 고문단이 거중 조정을 통해 재화합과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형 고문은 "서로 노력을 하다보면 길도 있을 줄로 안다, 대화 창구는 항상 열어 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경모 고문은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동창회보에도 알려 대선배들의 충정을 공유했으면 한다. 또 적당한 기회에 24대부터 26대까지 회장을 복원하는 문제도 고민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송석환 고문은 "정재철 선배님께서 지적한대로 법에 따른 동창회 중심으로 미래가치 창조에 더욱 분발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전영화 회장은 마무리 인사에서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신 원로고문단 선배님들의 바램과 방향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동창회 안정과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원로·고문단의 의견

2016.5.18.

동창회의 장학사업은 모교 발전을 위해 선배들이 할 수 있는 후배 사랑의 유일한 표현입니다.
재단법인 동국장학회는 정관에 준해 조속히 정상화 되어야 합니다.
이 일련의 동국의 110년 명예와 전통을 정리는 길입니다.

동국장학회 정상화 촉구도

원로 고문단은 5월19일 회의 석상에서 동국장학회의 조속 정상화를 촉구하는 의견서에 서명했다. "동창회의 장학사업은 모교발전을 위해 선배들이 할 수 있는 후배 사랑의 유일한 표현"이라며 "재단법인 동국장학회는 정관에 준해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면 안내 04면 산업체 방문 외 07면 만해를 기리다 08면 동국의 인맥 – 정치분야 10면 동문동정

##동국대238호 2016.5.20 15:17 페이지2

110년 역사 위에 다시 출발하는 '동국'

전영화 회장 개교기념 축사 "구성원 간 화합 • 협력으로 명문사학 위상 빛내자"



▲ 전영화 총동창회장이 개교 11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하는 모습.

우리 모교가 5월8일로 개교 110주년을 맞아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으로 도약할 것"을 다짐했다. 대학당국은 "문화와 창의를 가꾸는 대학" "지성과 가치를 존중하는 대학"이라는 플래카드를 교정 곳곳에 내걸었다.

이에 앞서 개교기념식이 5월6일 오전 11시 서울캠퍼스 중강당에서 거행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학교법인 이사장 성타스님, 한태식 총장, 전영화 총동창회장, 송석구 전임 총장, 14개 해외자매대학 관계자와 재학생 • 교수 • 직원, 동문 등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전영화 총동창회장은 축사에서 "우리 모교에 화합하고, 협력하는 상생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며 "어느 때보다 학교법인, 대학당국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들의 분발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총동창회도 동국의 위상을 빛내는 한 축으로서 본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태식 총장은 기념사에서 "지난 110년이 민족사학으로 자리매김한 영광스러운 역사였다면 앞으로 110년은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으로 한번 더 재도약하는 역동적인 시간이 될 것"이라며 "교수, 직원, 학생 그리고 26만 동문, 1000만 불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합친다면 이 꿈은 반드시 현실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사장 성타스님은 치사에서 "가장 한국적이고도 세계적인 대학으로 쌓아온 명성과 전통을 위대한 유산으로 삼고, 110주년의 저력으로 21세기를 선도하는 명문사학으로 재도약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동국학술상 및 우수연구자상, 대학원 학술상, 자랑스러운 동국불자상과 함께 장기근속자와 우수 직원에 대한 공로상 시상이 함께 진행됐다.

한편 학교 연혁보고에서는 개교기념일 기준으로 교수 1,060명, 직원 449명, 재학생 2만6천193명, 학부 • 대학원 졸업생 199,243명, 학부 및 각급 대학원 중퇴 • 수료자를 포함한 전체 동문은 26만명으로 발표했다.

모교 사태 '총동창회 입장' 발표

"교수 징계 철회-학생 고소 취하 하라"

총동창회(회장 전영화)는 4월29일 '모교 동국대 사태에 대한 총동창회의 입장' 발표를 통해 "학교당국 · 교수협의회 · 총학생회 · 학교법인 등 구성원들이 각자 입장에서 한 발짝씩 물러나 갈등을 해소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지난 4월 27일, 1년 이상 장기화되고 있는 모교 학내문제에 대한 총동창회 의견수렴을 가진 2016-3차 상무위원회 결의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총동창회는 학교당국에 "대화합 차원에서 신속하게 교수 · 직원에 대한 징계철회와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들에 대한 고소 건을 5월6일까지 취하하라"고 촉구했으며, 교수협의회 측에는 "학교당국과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동국대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총학생회 측에는 "학교당국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한다면 더 이상 과격한 행동이나 대결을 지양하고 학교발전을 위해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으며 학교법인 측에는 "동문을 정상적으로 대표하는 인사가 이사로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장문 16면>

모교 교무위원 입장 천명

"동창회 제안 전적 동의"

지난 4월29일 총동창회에서 발표한 '모교 사태에 대한 입장'에 대해 모교는 5월2일 교무위원회를 열고 "총동창회가 최근 학내 갈등상황을 우려하며 대화합을 촉구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학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기로 결의했다"고 발표했다. 교무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학내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구성원간의 대화 적극 추진 △교수와 직원 징계 건은 총동창회의 제안을 조건없이 수용하며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대화합 차원에서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 고소건 취하 등 구체적 이행사항을 천명했다.

<입장문 16면>

총학 운영위 "존중" 지지

총학생회 운영위원회가 5월4일 총학생회장에 대한 고소 건을 비롯한 학내 비정상적인 상황을 상호 존중과 협력의 대화로 해결하자고 제안해온 총동창회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운영위원회는 "학교 모든 구성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자리가 주제에 제한없이 필요하다"며 논의 테이블의 주제로 △학내 교육환경 개선 △학생 준직 폐기를 비롯한 학생자치 발전과제 △총장 선출 및 이사회 구조의 민주적 발전방안 등을 제시했다.

총학생회 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총여학생회, 동아리연합회, 각 단과대 학생회등 대표 15명으로 구성된다.

<입장문 16면>

2016 정기이사회/총회 개최

총동창회 회칙 제15조에 의한 정기이사회 및 제13조에 따른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동문 여러분께서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일 시 : 2016년 5월25일 (수) 18:30
- 장 소 : 모교 중강당(본관 3층)
- 안 건 : 결산 및 예산안
  총동창회칙 개정
  기타사항

※식전 행사 : 동창회장학금 전달식
초청 특강 (연사 김종필,내일신문 정치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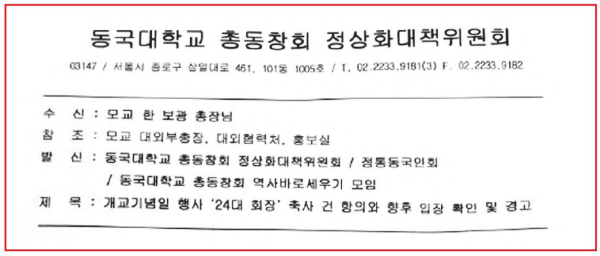
2016년 5월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동국대238호 2016.5.20 15:17 페이지3

모교 발송 '동창회 음해 문서' 허위 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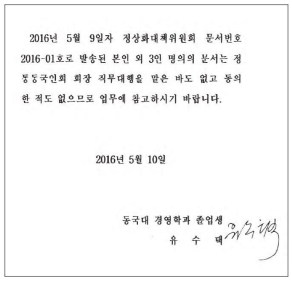
유수택 동문 "정통인회 회장 동의한 적 없다"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정상화대책위원회

03147 /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61, 101동 1005호 / T. 02.2233.9181(3) F. 02.2233.9182

수 신 : 모교 한 보광 총장님
참 조 : 모교 대외부총장, 대외협력처, 홍보실
발 신 :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정상화대책위원회 / 정통동국인회
/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역사바로세우기 모임
제 목 : 개교기념일 행사 '24대 회장' 축사 건 항의와 향후 입장 확인 및 경고



2016년 5월 9일자 정상화대책위원회 문서번호 2016-01호로 발송된 본인 외 3인 명의의 문서는 정통동국인회 회장 직무대행을 맡은 바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10일

동국대 경영학과 졸업생
유 수 택

자칭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정상화대책위원회(이하 정대위)'가 지난 5월 9일자로 모교에 보낸 문서의 대표이름이 도용됐음이 밝혀졌다.

정대위는 자칭 동국대 총동창회 정상화대책위원장 오진모, 정통동국인회 회장직무대행 유수택 등 3인의 이름으로 "모교 개교 110주년 기념행사에 24대 동창회 책임자란 자격으로 참석해 축사를 한 사실을 접하고 엄중 항의하며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는 등의 문서을 모교 총장 앞으로 보냈다.

그러나 유수택 동문은 회장 직무대행을 수락한 적이 없으며, 서한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다는 확인서를 지난 5월10일자로 총동창회에 보내왔다.

유동문은 확인서에서 "본인 외 3인 명의의 문서는 정통동국인회 회장 직무대행을 맡은 바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문서에 함께 서명한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역사바로세우기모임' 대표 이황씨 역시 총동창회에 동 기구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기구가 있다 하더라도 임명한 적이 없어 사칭하고 다니고 있음을 드러냈다.

한편 모교 측은 지난 5월11일 이황씨로 부터 전영화 총동창회장이 모교 개교기념식 행사에 참석한 것 등에 대해 항의를 받고 "합법적인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개교기념식에서의 전영화 회장 축사는 당연한 절차였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국장학회 조속 정상화 촉구 시위



▲ 이연택 자택 근처에서 시위를 벌였다.

재단법인 동국장학회가 2년여째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정상화 시켜 달라는 동문들의 항의 시위가 종로구 혜화동로타리 이연택 이사장 집 근처에서 3월31일부터 4월28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50여명의 동문들이 참가한 가운데 5차에 걸쳐 열렸다.

집회에 참가한 동문들은 "이연택 이사장은 동국대 동창회 분란의 장본인으로 동국장학회까지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다"면서 "이렇게라도 항의하지 않으면 후배들을 위한 장학사업이 언제 정상화될지 요원하기 때문에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지난해 11월 동국장학회 감사를 실시해 원래 사업장(종로구 인사동7길 12 백상빌딩 3층 동국대총동창회 사무실)으로 주소를 원위치 시킬 것 등을 지적했지만, 이연택 이사장 측이 거부하고 있다.

매 집회때마다 동문들은 "이연택, 동국장학회 정상화 하라"는 플래카드를 앞세우며 "장학기금 불법인출 중단시켜라" "동국장학회 방치말라" "동국장학회 반환하라"는 구호와 함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정기 이사회 및 총회 개최

예 · 결산안 상정… 후배 장학금 전달 가져

2016년 정기 이사회 및 정기총회가 오는 5월25일(수) 오후 6시30분부터 모교 본관 3층 중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날 행사는 제1부 정기이사회, 제2부 정기총회로 나누어 진행된다. 회의 시작에 앞서 동문 초청 특강과 후배장학금 전달식도 함께 갖는다.

이사회 및 총회에서는 회무 보고에 이어 △2015년도 결산안 통과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의결 △회칙 개정안 등이 상정, 처리된다.

초대 동창회장 만해 한용운 묘소 참배

동창회 뿌리찾기 첫걸음… "새 역사를 쓰다"



우리 총동창회 뿌리찾기 일환으로 기획된 초대회장 만해 한용운 선배 묘소 참배 행사가 4월15일 오후 전영화 회장을 비롯 50년대 학번부터 80년대 학번까지의 동문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망우리 공원묘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묘소 앞에 간단한 제물을 올리고 본회 소통위원장 김종필(82행정)동문의 사회로 삼귀의례, 조충미(81교육) 여자동창회수석부회장의 헌화, 권영희(84연영) 동문의 '님의 침묵' 시낭송, 추모사, 법타스님(67인철)의 망축발원문, 헌향,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전영화 회장은 추모사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는 뜻깊은 오늘, 우리는 한용운 선배님의 고귀하신 가르침을 이어받아 동국발전과 국운융성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참석자들에게는 만해 한용운시집 '님의 침묵' 1권씩을 선물했다.

초대 회장 만해 한용운은 모교 전신인 명진학교 1회 졸업생으로 1918년 일심회를 발족시켜 오늘의 총동창회 초석을 놓았다.

(관련기사 7면)

"제명된 사람 모교이사 선임 안된다"

전영화 회장, 불교계 기자회견서 강력 비판

전영화 총동창회장은 "동창회가 제명한 사람을 모교법인의 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이는 모교의 위상과도 결부된다. 동창회는 문병호 씨의 이사 선임을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본회는 3월29일 총동창회 사무실에서 불교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3월24일 모교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임기가 만료된 이연택 이사 후임에 문병호 사랑의 일기 재단 이사장과 이은기 서강대 교수를 후보 추천했다.

전 회장은 "이연택 이사 후임 자리는 1970년대 이후 관례적으로 동문을 대표해서 이사로 참여해온 총동문회 몫"이라며 "총동창회장 자격으로 이사가 된 이연택 이사의 후임은 동창회가 이어가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강조했다.

전 회장은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3일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제297차 이사회에서 임원 총사퇴를 결의한 후 아직 사퇴하지 않은 개방이사 3명 중 김기유 이사와 김선근 이사에게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개방이사 선출안 보류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이사장 직무대행 성타 스님)는 4월11일 경주캠퍼스에서 '제302회 이사회'를 열어 "개방이사로 추천된 후보에 대해 총동창회의 반발 등 잡음이 있다"며 다음 이사회로 선출안을 이월했다. 앞서 총동창회는 이연택 이사 후임 선출과 관련,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로 추천된 문병호와 이은기씨의 불가론을 불교계 언론매체에 알리고, 법인 임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동국대238호 2016.5.20 15:17 페이지4

"만고성장(萬古成長) 동국인 - 영구불변(永久不變) 동창회"

■자동차 유리 '코리아오토글라스' 탐방

총동창회의 금년도 역점사업의 하나인 성공동문 기업 첫 탐방행사가 3월22일 동문기업인 등 6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세종특별시 전의면 산업단지에 소재한 코리아오토글라스(KAC)에서 진행됐다.

KAC은 정상영(56/60법학) 본회 고문이 명예회장으로 있는 (주)KCC 계열사로 자동차용 안전유리 글로벌 메이커이다. 이날 행사는 KAC 홍보영화 감상, 회사측 환영사, 전영화 총동창회장 명의의 감사패 전달, 생산공장 견학, 정 명예회장과의 오찬 간담회 순으로 열렸다.

정 명예회장은 "60명 규모가 방문한 것은 KAC 설립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며 "기업하는 동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전영화 총동창회장은 간담회에 앞서 "우수한 기술력과 세계적인 경쟁력으로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글로벌 메이커로서의 위업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인사했다.

KAC은 5만8천평의 제1공장과 1만여평의 제2공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제일의 규모이다. 또 2000년 설립당시 연간 자동차 유리 150만대 생산 규모에서 현재는 520만대로 성장했다.



▲ 동문 60여명이 세종시 전의면에 있는 첨단기술의 자동차 안전유리 글로벌메이커 KAC을 방문했다.



▲ 40만 고객을 상대로 환경위생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스코는 세계적 기업이라는 자부심이 넘쳐났다.



▲ 두동강난 천안함 잔해가 남북한 분단현실과 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했다.

■세계적인 위생기업 'CESCO' 방문

전영화 회장을 비롯한 총동창회 임원 26명이 4월15일 본회 고문 전순표(53/57농학)동문이 회장으로 있는 세계적 수준의 종합환경기업 세스코를 방문했다. 서울 강동구 상일동 소재 세스코(CESCO) 방문은 총동창회의 성공동문 기업체 탐방 2번째 일정이다.

본사 건물인 세스코 터치센터를 방문한 본회 임원들은 전순표 고문의 영접을 받으며 회사소개 동영상 감상에 이어 R&D 시설과 바이오테크 센터, 교육센터, 고객센터 등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세스코는 방제기업중 유일하게 생명, 화학, 전자, 기계, 소프트웨어, 공학분야의 2백여명 석·박사로 구성된 R&D 인프라를 통해 신규 약제 및 첨단 장비, 개발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해충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설립 40년째를 맞은 세스코는 현재 100여개의 직영지사와 4천여명의 임직원이 40만 고객을 상대로 환경위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2014년 연건평 1만평 규모로 완공된 '세스코 터치센터'는 첨단시스템과 건축디자인이 뛰어나 건축 전문가들도 많이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 2함대 '천안함' 전시장 견학

천안함 침몰 6주년을 맞아 전영화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임원 50여명은 지난 3월22일 평택 제2함대를 방문, 임무 수행중 전사한 승조원들을 추모하고 국가 안보의식을 고취시켰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등으로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이번 견학은 해군 제2함대 홍보영화 감상, 북한 도발 만행 자취들이 전시된 서해수호 관람, 천안함 파손 선체 확인 순으로 진행됐다.

천안함(PCC-772) 피격사건은 2010. 3. 26(금) 21:22분경 우리 영해인 백령도 서남방 2.5Km 해상에서 경계 임무수행 중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공격으로 침몰당해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전사하고 58명이 구조된 냉전시대의 비극으로 남아 있다.

서해수호관은 제1연평해전부터 연평도 포격 도발까지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침범 등 북한의 도발 만행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NLL의 역사, 주요 무기 및 전력, 주요 해전 상황, 해전 당시의 유물, 군함 모형, 천안함 유물 및 희생자 영정 등이 전시되고 있었다.



대표이사 / 회장 **김 재 경** (경제학과 1961卒)
TEL. 032) 812-2351/4 FAX. 032) 812-3024

동국대학교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國際 Rotary 3600 地區

總 裁 (2015 ~ 2016)

白龍 鄭 萬 和

(화학과 80卒)

(白岩Rotary-Club)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대로 95-28
Tel. 031) 334-3047 Fax. 031) 333-4840
Mobile. 010-3722-3951 E-mail. jmh4840@naver.com

##동국대238호 2016.5.20 15:17 페이지5

불교학과 창설 110주년 기념제

불교학과동창회(회장 김용표)는 모교 불교학과와 공동으로 4월29일 모교 국제선센터 2층 대각전에서 '불교학과 창설 110주년 기념제'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배출된 3000여 명의 동문들이 한국불교 중흥에 기여한 업적을 재조명하고 불교발전의 원력을 다지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의 제1부는 기념법회와 동문 에세이집 봉정식을 가졌다. 에세이집 '삼보의 언덕에 오르다'는 만해 한용운, 박한영, 서정주, 권상로, 백성욱, 조명기 등 해방 전 졸업생에서 2016년 졸업생까지 81명의 불교적 인생관을 조명했다.

2부는 세미나로 '한국불교 중흥과 불교학과 동문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회칙개정위원회 개최

총동창회칙 개정을 위한 회칙개정위원회가 5월12일 오후 3시 동창회 회의실에서 열려 회칙일부 개정안을 심의했다.

주요 심의내용은 △회원의 종류 단순화 △임원 숫자 확대 △회계연도 개시일 변경 등이었다.

이번 회칙개정안은 5월25일 정기총회에서 의결, 시행된다.

회칙개정위원장은 김환진(76/80경행, ROTC동문회장)동문이 맡았다.

위원은 △문한성(79/83법학, 변호사) △윤재민(81/85사학, 범우사 대표이사) △사기순(84/88국문, 도서출판 민족사 주간) △오수환(84/91경제, 투어마켓 대표)동문 등 4명이 지난 4월25일 위촉되었다.

4.19혁명 56주년 추도식



4.19혁명 제56주년을 맞아 추도식이 4월19일 오후 1시 모교 만해동산 동우탑 앞에서 전영화 총동창회장과 양영진 교무부총장을 비롯 4.19혁명동지회(회장=라동영), 4.19혁명 유공자회(회장=오진모) 회원 및 안드레 총학생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거행됐다.

동국대는 4.19 혁명 당시 경무대 진출의 최선봉에 섰다. 4.19 멤버들은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 4.19민주묘지를 먼저 방문하고 기념탑에 분향했다.

불교대학원 CEO과정 회장 이희봉 취임



이희봉 회장

불교대학원 CEO 동문회(회장=이희봉, 히말라야갤러리 대표)는 4월17일 명동 퍼시픽호텔에서 회장단회의를 열고 상반기 운영계획 등을 협의했다.

이에따라 봄철 성지순례로 4월30일 문경 봉암사를 다녀왔다.

회장된 회의는 역대 동문회장과 1기부터 23기까지 각 기수별 회장이 참여하여 동문회 주요 사업계획 등을 심의, 의결하고 있다.

'총동창회 밴드' 2주년 문화행사

'동국애(愛) 미치다' … 다양한 재능 기부



우리 총동창회 〈소통과 대통합〉밴드 오픈 2주년을 기념한 문화행사가 '동국애(愛) 미치다'가 5월13일 밤 광화문에 있는 문화복합공간 에무에서 열렸다.

전영화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80여 명의 동문들이 참가한 이날 행사는 회원들의 다양한 재능 기부 프로그램으로 소속감을 높이며 감동의 도가니를 연출했다.

총동창회 소통위원장 김종필(82행정) 동문의 밴드 2년의 역사 회고와 미래상을 밝히는 개회사로 시작된 행사는 곧바로 최순호(86경행), 이순구(99경행) 동문이 제작한 '동국애(愛) 미치다' 동영상 관람으로 이어졌다. 뒤이어 매일 밴드에다 자작시를 올리는 서경석(82사학)동문이 보내온 축시 '소통과 공감, 그리고 대통합'을 신화섭(84화학)이 낭송했다.

정이안(86한의, 광화문 정이안한의원장)동문은 가곡 '그리운 금강산' 'Lascia Ch'io pianga"를 열창했으며, 문정숙(84연영, 코미디언)동문은 '산적' 퍼포먼스, 김미행(85영문, 은평SLP어학원장)동문은 'Than never to have loved at all' 등의 영시 낭독, 이혜림(85국교, 교사) 동문은 꽃(나태주) 비단강(김춘수) 시 낭송, 박성기(82국문)동문은 '사랑, 그놈' '친구여' 노래를 불러 각각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휘날레는 차연신(85연영)동문이 신디사이저 연주와 함께 부른 'Top of the world' 'Sweet Sweet Smile' 노래가 장식했다.

입학30주년 리멤버 등산대회

79 ~ 85학번 150여명 '아름다운 동행'

제2회 입학30주년 리멤버 등산대회가 79학번부터 85학번까지의 동문 150여명이 참가한가운데 4월30일(토) 모교 운길산 연습림일대에서 열렸다.

입학30주년 홈커밍데이 행사 기수들이 학번별 친목을 도모하고 선후배 간 유대를 돈독히 하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는 80학번(대표=이남식, 80/84토목)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운길산 등반을 가진뒤 바비큐 파티, 레크레이션, 족구대회 등으로 아름다운 동행을 마무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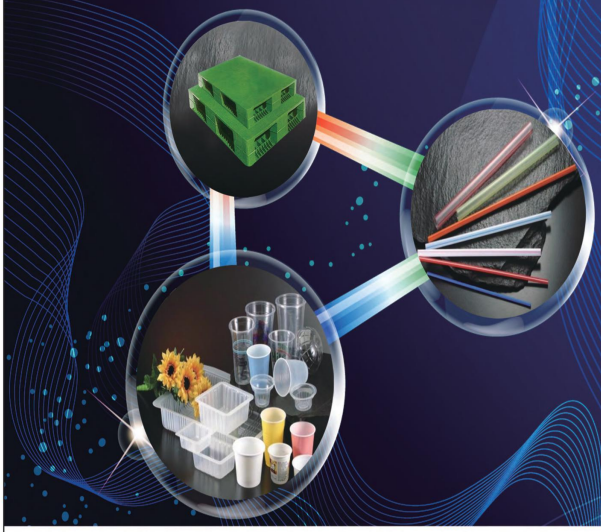


##동국대238호 2016.5.20 15:17 페이지6

www.straw.co.kr

業界 46年,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 다년간의 자체 경험과 Know-how를 바탕으로 완벽한 자체 자동화시스템 구비.
- PP, PS, OPS, PET 등 재질에 관계없이 성형, 인쇄 할수 있는 국내최대 설비시설 보유.
- 일체형(One-Body)PALLET의 성형으로 경량화 및 경제적인 가격실현.

상경물산주식회사
ISO9011 품질보증체제 인증업체

대표이사 : 李 相 玄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0 상경빌딩 14F TEL : 02-557-4757 FAX : 02-556-3866

YOUNGWOO 주식회사 영 우 Global Hidden Champion

신소재 개발과 기술혁신으로 TAPE & COATING산업의
Global시장을 선도하는 Global Hidden Champion기업



Global



❶ 동관영우
❷ 베트남 하노이
❸ 천진





Domestic

화성공장 ❹
DYT ❺
군포 본사&연구소 ❻







www.hitape.kr | 본사 :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186 / 공장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청원로 37 대 표 이 사 : 홍 기 영(화학공학과 78入/83卒)

##동국대238호 2016.5.18 6:9 PM 페이지7

"만해가 만든 '일심회'가 동창회 효시"



▲ 총동창회 역사상 처음으로 초대동창회장 만해 한용운 묘소 참배 행사를 가졌다.

명진학교(동국대 전신) 시절 학생활동의 구심점은 광학회였다. 광학회는 졸업생과 재학생이 함께 참여한 모임이었기 때문에 완전한 형태의 동창회는 아니었다. 이후 불교중앙학림 시절에 이르러 광학회는 졸업생으로 구성된 일심회와 재학생으로 구성된 유심회로 분리되었다. 따라서 1918년 한용운이 초대 회장을 맡으며 출범한 일심회가 동창회의 첫 출발이 되었다.

총동창회에서 '만해 선양사업' 추진

5개 지자체도 협의회 구성 활동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시인인 만해 한용운 선사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는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우리 총동창회는 만해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만해 백일장 후원, 만해마을 탐방, 심우장 방문 등과 함께 만해와 인연이 깊은 전국 5개 지자체와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모교 만해연구소를 비롯한 서울 성북구 등 만해와 인연이 깊은 전국 5개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 인제군 만해마을교육원 등도 3월22일 만해 생가가 있는 홍성에 모여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를 출범시켰다. 5개 지자체는 출생(홍성)부터 출가(인제), 수행(속초), 수감(서대문), 입적(성북)까지 만해 인생의 큰 변곡점에 있던 곳이다.

이날 5개 지자체 등은 그동안 제각각 진행해오던 만해 관련 사업을 공동협력사업으로 묶어 만해의 시대정신과 역사의식을 재조명,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비롯한 전 국민에게 민족정신을 되새기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어제의 역사는 오늘로 이어지기에...

만해 한용운 선배님 묘역에서

햇살 반짝이는 날 망우리 언덕에 꽃비가 내렸다.
우리는 그 꽃길을 걸어
그분을 만나러 갔다. 만해 한용운 선배님!

스님, 시인, 독립운동가, 민족대표33인. 시 '님의침묵'
자유와 평등을 기본으로 한 인본주의적 사상을 말씀하신 분.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글로 행동으로 정의롭게 살다 가신 분.
그 분이 우리 선배님이시다니.
참으로 멋지고 자랑스럽다!

그러나 선배님 묘역에 머무르던 내내 마음이 씁쓸하고 무거웠다.
초라하게까지 보이는 그분의 자리가 우리 모두의 소홀함으로 느껴져
그 자리에 있는 동안 죄송스러운 마음이 가시질 않았다.
어떤 이가 큰 일을 행할 때는 누군가 알아주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지는 않겠으나 이어받은 자는 그 정신을 기억하고, 그 뜻을 기리고
지키는 것이 마땅한 것일진데, 어찌하여...

그래도 참으로 다행이지 않은가?
이제라도 깨닫고 이곳에 모인 후배들이 있으니...
오늘은 비록 후배 몇십명이 모여 반성하고 안타까움을 말하지만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가슴에서 가슴으로 이어질 것이고,
반드시 꽃피울 것이라 믿는다.
역사는 어제의 기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기에.

지난 겨울 한용운 선배님이 만년을 보내신 심우장에서 보았던 글이 생각난다.
"자유는 만유의 생명이요, 평화는 인생의 행복이다."
인간의 가장 기본권이자 최고의 가치인 자유와 평화를 후손에게 남기시기
위해 애쓰신 선배님의 피와 땀, 그리고 그 정신을 우리는 기억해야한다.

참되고 멋진 길을 가신 선배님!
그 삶을 존경하고 선양하려는 후배!
우리는 민족동국 한가족!
아~참으로 멋지지 아니한가?



윤 원 희 (84/88가정교육과)



대한불교 조계종 문수사 | 주지
(재)일제강점기피해자지원재단 | 이사
사단법인 위드아시아 with ASIA | 이사장
지 원 (志源)

부산광역시 남구 홍곡로336번길 41 (용당동)
Tel. 051) 624-3754, 624-7848 Fax. 051) 623-9253
E-mail. cgoms@hanmail.net

##동국대238호 2016.5.20 15:17 페이지8

■ 동국의 인맥 – 정치분야

'동국 정치' 전통을 이어가는 기라성 같은 정치인맥

김은하 최재구 정재철 권노갑 김동영 최형우....이정현 홍영표 최재성 동문으로 이어져


김 은 하 6선


최 재 구 4선


정 재 철 4선


권 노 갑 3선


황 명 수 4선


김 동 영 4선


최 형 우 6선


신 순 범 4선


김 영 구 5선


이 긍 규 3선


최 재 성 3선


김 태 원 2선

동국대 정치 인맥이 한때 언론에 크게 부각된 적이 있다. 배출된 정치인이 많다는 점에서 뿐아니라 한국 정치 무대에서 중추적 역할을 한 정치인이 동국대 출신이란 점 때문이다.

조선일보사 발행 주간조선(1993.4.15자)이 "동국대 출신 정치인이 몰려온다"고 표지타이틀로 삼을 정도로 동국대학교는 한국정치를 주도하는 굵직한 정치인들이 여의도 국회에 포진했다.

제헌 국회부터 20대까지 모교 출신 국회의원은 모두 171명이다. 첫 국회의원은 2대 이종욱(06/08명진)동문이었다. 그러나 초창기에는 동문 진출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으며, 10대 때부터 2자리수의 당선자가 나옴으로써 동국정치의 파워가 드러났다. 특히 제14대때는 18명이 당선, 서울대와 고려대에 이어 3번째로 많은 당선자를 냈다. 이들은 이름만 대도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여의도 정치무대의 중심인물들이었다.

이중 김은하(48/52정치)동문은 동국정치의 초석을 다진 6선 의원이다. 그는 6대부터 11대까지 인천에서 야당으로 내리 6선을 하며, 11대 국회 부의장을 지냈다.

뒤를 이어 최재구(48/52국문)동문과 최형우(57/63정치)동문이 8대 때부터 정계에 진출했다. 최재구 동문은 4선으로 국회 경제과학위원장을 지냈으며, 7~10대 총동창회장을 역임 했다.

최형우 동문은 6선 의원으로 국회 운영위원장, 정무1장관, 내무부장관을 역임했으며 2000년 집권여당의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 물망에 올랐으나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9대 때 국회에 진출한 4선의 김동영(56/60정치) 동문은 1990년 노태우 · 김영삼 · 김종필 등 3인의 통합여당인 민주자유당 원내총무, 국회운영위원장, 정무제1장관을 지냈으며 1991년 사망할 때까지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로서 최형우 동문과 함께 YS의 '좌동영' '우형우'로 불린 민주투사 정치인이었다. YS의 상도동 가신그룹을 말하려면 '좌동영 우형우'를 빼고는 연결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두 동문의 정치적 역할은 지대했다. YS는 대통령에 오르기까지 '좌동영 우형우'가 없었다면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회고록에서 회고할 정도이다.

11대에는 정재철(9/52정치)동문과 김영구(58/62경제), 황명수(49/53정치), 박익주(59/61정치, 신순범(56/61정치)동문 등이 금뺏지를 달았다.

이중 4선 정재철 동문은 국회 재정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무장관으로 활약했으며 11~16대 총동창회장을 역임했다.

황명수동문 역시 4선으로 집권당인 신한국당과 민자당 사무총장, 국회 국방위원장, 국회부의장을 지냈으며, 총동창회장으로 동국장학회를 출범시켰다.

역시 4선인 신순범 동문은 평민당 사무총장, 국회 경제과학위원장을 역임했다.

김영구 동문은 5선으로 민자당 사무총장과 정무제1장관, 민자당 사무총장으로 노태우 정부 실세로 활약했다.

정치적 역량에 비해 뒤늦게 13대때 국회에 진출한 권노갑(49/53경제)동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핵심으로 지칭되는 동교동계의 맏형으로 불린다. 김대중 총재의 평민당 시절 비서실장 등을 지낸 3선 의원이며, 현재까지도 한국정치사에 큰 획을 긋는 역할을 하고 있다. 권노갑 동문은 20~21대 총동창회장을 역임했다.

이긍규(63/65법학) 동문도 13대부터 15대까지 당선된 3선 의원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지냈다.

탄탄한 정치인맥… '동국정치' 전통 되살려

최근에는 이정현(78/85정외), 홍영표(78/96철학), 최재성(83/94불교)동문이 각각 3선으로 정치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정현동문은 여당의 협지인 전남 순천에서 내리 2차례 당선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한다. 청와대 홍보수석 및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역대 동문 국회의원 명단(본회 파악분)

2대	이종욱
4대	강영훈
5대	강영훈 윤정구 이규영
6대	김은하
7대	김은하
8대	김은하 오중열 유성범 최재구 최형우
9대	김동영 김은하 김진복 안종열 이범준 최재구 최형우 황명수
10대	김동영 김상석 김용호 김유복 김은하 김제만 류한열 이상민 이정식 최재구 최형우 한옥신
11대	고병현 김영구 김유복 김은하 맹은재 박익주 신순범 양창식 이범준 이영일 이영준 이원범 임덕규 정재철 조병봉 황명수
12대	김동영 김영구 김용오 류한열 명화섭 박규식 박왕식 박익주 신민선 신순범 양창식 이범준 이상민 이영일 이영준 장충준 정재철 조병봉 최재구
13대	구자춘 권노갑 김길곤 김동영 김영구 김홍만 류인학 류한열 박지원 박태권 신순범 유기천 이긍규 이기빈 이찬구 정기영 최형우 황명수
14대	강희찬 구자춘 권노갑 김영구 남평우 류인학 박규식 박근호 박제상 박희부 신순범 양창식 이긍규 이영창 정재철 최상용 최형우 황명수
15대	권노갑 김기재 김영구 김일윤 남평우 박상규 신영균 윤철상 이긍규 이원범 정재철 최형우 황규선
16대	강신성일 김기재 김영구 김일윤 박상규 설송웅 유재규 윤철상 임인배 조재환 황승민
17대	김교흥 노웅래 임인배 조승수 정종복 최재성
18대	구상찬 김옥이 김태원 서종표 유재중 이정현 이진삼 조승수 최재성 한기호 홍영표
19대	김근태 김태원 노웅래 박원석 송영근 유재중 윤재옥 이상직 이채익 정갑윤 정호준 주호영 최재성 한기호 홍영표

홍영표동문은 민주당 원내대변인, 민주통합당 비서실장을 거쳐 현재는 더민주 인천광역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재성 동문은 민주당 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 더민주 총무본부장 등을 지냈으며, 20대 때에는 파벌정치 종식을 부르짖고 불출마를 선언, 광폭의 정치를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앞으로 그의 행보가 클 것으로 여의도 정치계에선 전망하고 있다.

'동국 정치'가 강한 것은 건학 110년의 역사와 함께 영글어온 '민족 동국'의 이미지 때문. 초대 동창회장 만해 한용운 선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정의로운 기상과 민중을 사랑하는 자애심, 세상을 변화시키는 열정이 수많은 정치인들을 배출했다고 평가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동국대 출신 국회의원이 대거 배출되면서 탄탄한 정치 인맥이 형성됐으며, 이들 선후배간의 유대와 결속의 결실로 정치인맥 전통을 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 당선자 수가 줄어 예전의 전성기만 못하다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대신 동문 국회의원 면면이 일당백의 역할을 하는 각당의 핵심 인물이라는 점이 위로가 되고 있다. 앞으로는 양적으로도 많이 배출돼 동국 정치의 명맥을 이어갈 것을 기대해본다.

정리: 사 기 순 (84/88 국문, 민족사주간)

##동국대238호 2016.5.20 15:17 페이지9

제20대 국회의원에 동문 12명 당선

학부 출신 4명…19대보다 줄어



홍 영 표 (78/96철학) | 이 정 현 (78/85정외) | 유 재 중 (81/85경주행정) | 전 재 수 (90/97역사교육) | 김 석 기 (85/89행대원) | 김 종 태 (90/92행대원)

이 채 익 (90/92사대원) | 노 웅 래 (99/05언론정보) | 박 광 온 (00/93언론정보) | 윤 재 옥 (06/09대학원) | 정 갑 윤 (10/11사대원) | 주 호 영 (10/12불대원)

△ 학부출신

- 홍영표(78/96철학)-인천 부평을, 더민주
- 이정현(78/85정외)-순천, 새누리
- 유재중(81/85경주행정)-부산 수영구, 새누리
- 전재수(90/97역사교육)-부산 북구 강서구갑, 더민주

△ 대학원 출신

- 김석기(85/89행대원)-경주시, 새누리
- 김종태(90/92행대원)-상주군위의성청송, 새누리
- 이채익(90/92사대원)-울산 남구갑, 새누리
- 노웅래(99/05언론정보)-마포구갑, 더민주
- 박광온(00/93언론정보)-수원시정, 더민주
- 윤재옥(06/09대학원)-대구 달서구을, 새누리
- 정갑윤(10/11사대원)-울산 중구, 새누리
- 주호영(10/12불대원)-대구수성구을, 무소속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이정현(78/85정외/전남 순천), 더민주의 홍영표(78/96철학/인천 부평을), 무소속의 주호영(10/12불대원/대구수성구을) 동문 등 국회의원이 12명 배출돼 '동국 정치'의 전통을 이어갔다. 지난 4월13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교 학부 출신 4명과 대학원 출신 8명 등 모두 12명의 동문이 당선됐다. 이번 당선자 수는 19대의 16명에 비해 4명이 줄었으나 각당의 핵심부에서 활약하는 명망가들이란 점에서 성가가 높다.

당선인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7명, 더민주 4명, 무소속 1명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1, 부산 2, 대구 2, 인천 1, 울산 2, 경기 1, 경북 2, 전남 1명 등이다. 영남 출신 동문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특징이다.

여당인 이정현 동문은 야당 텃밭인 전남 순천에서, 야당인 전재수 동문은 여당 텃밭인 부산에서 값진 승리를 거두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으며, 김종태 동문은 상주 • 군위 • 의성 • 청송 선거구에서 전국 최고득표율(78.7%)로 당선됐다.

당선 횟수로는 5선 정갑윤, 4선 주호영, 3선 노웅래 유재중 이정현 홍영표, 2선 김종태 박광온 윤재옥 이채익, 초선은 김석기 전재수 동문 등이다.

동국대 110주년, 다시 卍海의 큰 걸음으로

동국대 총동창회(회장 전영화)의 '적극적인 대화합 촉구'에 대해 모교 교무위원회가 입장문(5.2. 일자)을 통해 확실한 지지표명을 해왔다. 단식과 고소고발 사태 등으로 벼랑 끝까지 몰렸던 교내분열이 극적으로 타결이 되는 등판이되었다. 총학생회운영위원회도 긍정적 화답을 보내왔고, 학교당국도 대승적 차원에서 모든 갈등을 봉합하고 대화합의 대화의 장을 준비하겠다며 오랜만의 봄빛 던져왔다.

이제 학내 구성원간의 징계와 고소 등 냄새나는 오물 거적대기만 간단하게 걷어치우면 된다.

모교는 금년 110주년이다. 한국 근대 고등교육기관 3대 사학의 하나였던 모교가 최근 몇 년간 깊은 수렁에 빠졌다.

본교나 동창회나 물 먹은 문창호지마냥 통째로 맥 없이 쓰러져 갔고 뜻있는 동문들이 발길을 뚝 끊었다.

본관 앞을 지키고 서 있는 청동입불상 부처님도 교정에 진동하는 악취 냄새에 눈 가리고 돌아섰다.

학내 주요구성원 모두가 서로 삿대질하며 비난의 현수막을 경쟁적으로 올렸다. 장례식 만장 같은 현수막은 입학식, 졸업식 때마다 신입생과 학부모들에게 집안싸움의 추태를 눈꼴 사납게 보여주곤 했다.

이 시점에서 다시 만해(卍海) 초대 동창회장의 <불교유신론>(1913년)이 거듭 절실해진다. 당시 왜곡된 일제강점기 사악한 사회와 타락한 한국불교의 대혁신을 위해서 몸을 던졌다.

중세 유럽 르네쌍스 때 루터(Martin Luther)의 종교혁명과 같은 목숨 건 투쟁이었다. 당시 왕권보다 더 높은 로마 카톨릭 교황의 전횡에 대한 '95개 조 반박문'(Disputatio 1517sus)을 대자보로 붙였다. 유럽 전역이 불길에 휩싸였다. 이것이 결국 개신교(프로테스탄트)의 탄생의 단초가 되었다. 얼마나 많은 갈등과 희생이 있었겠는가.

동서고금 역사적 시대적 혁신이란 모두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피칠을 하더라도 썩은 물은 한번씩 확실하게 걸러내야 맑아진다.

따라서, 총동창회에서 이번에 획기적으로 마련한 큰 테이블에 우선 학교 당국이 교수협의회 등 교수 직원 학생 모두를 보듬어 대승적으로 고소, 고발을 전부 거두어 들여야 한다.

이제 전국 각급각처에서 활약하는 수 십 만 동문들과 미래 한국을 이끌어갈 수 만명의 재학생들이 한 마음으로 강강수월래 멍석을 다시 깔아야 한다.

금년 5월에도 망우리 산골짜기는 어김없이 야생화들이 지천으로 양손을 흔들며 우리 동창회 회장단을 대환영하였다.

만해(韓龍雲) 묘소 주변에도 뒤늦은 개나리 진달래 들쑥 등이 박수를 쳤다.

어쩌면 이번 대화합의 운기(運氣)와 염력도 만해 초대회장이 전영화 현 회장에게 두 손을 맞잡고 전해준 체온이 아닐까,

모든 걸 털고 일어나 제대로 된 110주년 대화합의 기념행사를 동국인 모두가 뜨겁게 '삼보의 언덕~'을 합창해 보자.



신 상 성
(63국문, 용인대 명예교수, 소설가)

##동국대238호 2016.5.20 15:17 페이지10

임덕규 동문-현성스님 고문 추대


고문 임덕규


고문 현성스님

총동창회는 고문으로 경하 현성스님(72/75행원, 도선사 조실)을 지난 1월 추가 추대한데 이어 4월말에는 임덕규(56/60법학, 월간 디플로머시 회장)동문을 고문으로 새로 추대했다. 두 고문 추대는 동문사회 원로 동문들의 지혜와 참여를 통해 총동창회 화합과 안정, 모교 발전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경하 현성스님은 조계종 총무원 각 부장, 중앙종회의원, 청담학원 이사장, 동국대 재단이사, 중앙승가대 총장, 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 총재 등 종단 내외의 주요 소임을 두루 역임했다.

임덕규 고문은 신아일보 논설위원, 국회의원(11대), 세계국제법협회 세계회장, 세계외교연구원 이사장, 한·인도친선협회 회장, 인천아시안게임·평창동계올림픽·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 등을 역임했다.

취임 · 영전

한국산악회 29대 회장



정기범(66/70법학, 광진상공 대표이사) 동문이 지난 2월27일 열린 한국산악회 제70차 정기총회에서 제29대 회장에 당선됐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법타스님(67/74인쳘, 전 동국대 정각원장)이 3월 14일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에 임명됐다.

한국인조석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진길(72/78행정, ㈜한석시스템 대표이사) 동문이 지난 2월말 열린 정기총회에서 한국인조석가공업협동조합 신임 이사장에 선임됐다.
유원건설에서 11년간 근무했으며, 1998년부터 ㈜한석시스템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흥국화재 대표이사



문병천(73/81통계) 동문이 3월18일 열린 흥국화재 주주총회에서 흥국화재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됐다.

청소년교화연합회 이사장

선일스님(73/77인쳘, 인천 부루나포교원 법명사 주지) 스님이 3월17일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4.19혁명 유공자회장



유인학(86/94대학원)동문이 5월10일 4.19기념도서관에서 열린 4.19혁명유공자회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에 선출됐다. 국회의원(2선)과 한국조폐공사 사장을 지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전무이사



이광호(74/79행정) 동문이 2월1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전무이사에 취임했다.
신용보증기금 지점장과 유일기연(주) 부회장을 지냈다.

한국전력공사 감사



이성한(75/79경행, 모교 석좌교수)동문이 4월25일 한국전력 감사에 선임됐다. 청와대 치안비서관실과 부산지방경찰청장을 거쳐 18대 경찰청장을 역임했다.

한국석회석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재성(77/83경제) 동문이 지난 2월23일 한국석회석사업협동조합 2016년 정기총회에서 신임 이사장에 당선됐다. 임기 3년.

전기협동조합 기술연구소장



임성주(75/82전기공학) 동문이 3월9일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기술연구소장에 선임됐다. 한국전력 신성남 전력처장 등을 역임했다.

인천대학교 상근감사



윤용식(77/84국사교육)동문이 2월5일 인천대학교 상근감사로 취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경찰공제회 사업관리이사



윤철규(78/82경행) 동문이 3월23일 경찰공제회 사업관리이사로 부임했다.
서울 종로경찰서장, 충북청장(치안감) 등을 역임했다.

금융감독원 부원장



김수일(81/88전산) 동문이 3월7일 열린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 신임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으로 승진했다.
보험 감독원으로 입사해 통합뒤에는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장, 기획·경영지원 부원장보 등을 역임했다. 임기 3년.

KT&G 신임 경기본부장에



송인철(78/82공경) 동문이 KT&G 신임 경기본부장에 취임했다.
1977년 KT&G에 입사한 이후 본사 홍보기획팀장, 제주본부장, 강원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주)휴온스 부사장



윤보영(82/89경주경영) 동문이 3월3일 단행된 전문제약기업 (주)휴온스의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1989년 제일약품에 입사해 2006년 휴온스로 옮겨 성공적인 코스닥 상장에 역할을 했다.

신간 도서

'커피, 검은 악마의 추억' 출간



장상인(69/73행정) 동문이 최근 커피농장 체험 · 카페순례기가 담긴 장편소설 '커피, 검은 악마의 유혹'을 펴냈다. 소설은 '커피 상식 사전'이라 할 만큼, 커피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커피와 어울리는 음악과 고전, 명소 등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다.

뉴스플러스

국문과 회장 장진 동문



국어국문학과동창회가 오는 5월28일 총회를 겸한 장진(73/77) 신임 회장 출범식을 갖는다. 同會는 지난해 연말 총회를 갖고 임기가 끝난 김용복(72/76, 前 배재고교장) 회장 후임 선임을 임원단 회의에 위임하여 올해 2월 장진 동문을 추대한 바 있다. 새 집행부는 사업목표로 장학사업 확대와 조직 강화, 국문과 전통 계승 방안 등을 내세우고 있다. 총무는 김상일(81/88, 모교 국문과 교수) 동문이다.

여자동창회 장학금

여자총동창회(회장=김영순, 65/69화학, 모교 명예교수)는 3월29일 모교 본관 소회의실에서 임혜미(수학4년), 김남형(체교4년)양 등 여학생 2명에게 각각 1백만원씩의 장학금 전달했다. 여자동창회 장학금은 회원들이 매월 일정액씩 모아 1, 2학기로 나눠 지급하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영순 회장을 비롯 김태현(84불교) 장학위원장, 사기순(84국문) 홍보위원장, 김보원(85전산, 모교 전산원 교수) 동문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동불회 장학금

불교학생회 출신 모임인 동불회(회장=사기순) 장학금 수여식이 3월26일 모교 불교학생회연등원 개장식과 함께 있었다.
이날 장학금은 동불장학위원장인 김태현(84불교) 동문이 불교학생회장 변지훈(법학05학번)군과 직전 회장에게 1백만원씩, 부회장에게는 50만원을 전달했다.

'무소유' 책 기증



윤재민(81/85사학, 도서출판 범우사 대표) 동문이 만해 한용운 시집인 '님의 침묵' 100권과 법정스님의 '무소유' 40권을 총동창회에 기증해왔다.
윤 동문은 "만해 시집이 총동창회에서 금년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대 동창회장 한용운 선배 선양사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기증했다"고 밝혔다.

##동국대238호 2016.5.20 15:17 페이지11

동국, 세상의 모든 꿈에 도전하라

봄학위 수여식…신입회원 4,000여명 탄생

모교 2016년 봄 학위수여식이 서울캠퍼스는 2월18일 오전 중강당에서, 경주캠퍼스는 2월19일 오전 100주년 기념관에서 각각 거행되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서울캠퍼스는 학사 2061명, 석사 503명, 박사 110명 등 총 2674명이 학위를 받았다.

경주캠퍼스는 학사 1325명, 석사 29명, 박사 9명, 불교문화대학원 19명, 사회과학대학원 25명, 경영대학원 36명, 의학전문대학원 30명,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학위과정 9명 등 총 1482명이 졸업했다.

특히 서울캠퍼스 학위수여식에서는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故이병진 씨에게 명예정치학사 학위를 수여했다. 고인은 한국전쟁 당시 <서울, 인천 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으로 전사했으며, 유족들은 지난 2010년 배상금 등 총 6천만 원을 모교에 기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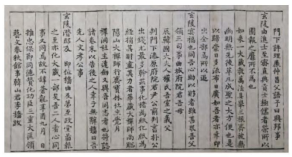
또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모교에 5억 4천만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한 벽담 학명스님은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재학 중 1221시간의 봉사활동을 기록한 이흥수(영어통번역학전공)씨와 2013년 제3회 olleh 국제스마트폰영화제 대상을 수상한 김찬년(영화영상학과)씨 등 13명은 공로상을 수상했다.

한편 서울캠퍼스 학위수여식에는 전영화 동국대 총동창회장 등 총동창회 임원 30여명이 참석해 신입회원이 된 졸업생들을 환영했다.

'最古 팔만대장경 판본' 공개

박물관 특별전시실서 6월 10일까지



개교 110주년을 기념해 모교 박물관은 특별전시실에서 「여시아문(如是我聞)-깨달음의 길」을 주제로 5월6일부터 6월 10일까지 특별전을 갖는다.

이번 특별전에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팔만대장경 판본이 전시되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일본 오타니(大谷)대학이 소장한 고려대장경 대반야바라밀다경 판본 제10권은 고려 우왕 7년에 목은 이색 등이 공민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찍은 판본으로, 이번 전시를 위해 600년 만에 한국 땅을 밟게 됐다.

훈민정음 창제직후 손으로 쓴 가장 오래된 한글자료인 경기도 일산 원각사 소장 능엄경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다.

K-ICT 디지털콘텐츠 개방형캠퍼스

모교가 3월 15일 한국전파진흥협회 주관 2016년도 'K-ICT 디지털콘텐츠 개방형캠퍼스 VR-LAB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에따라 영상대학원 멀티미디어학과는 2018년까지 SR(Substitutional Reality, 대체현실) 기반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 기간 동안 모교는 프로젝트 고도화를 위해 상암 DMC 내 입주공간과 연구기자재 등 시설지원, 연 2억5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기간은 2년이며 평가 후 계속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 선정

모교 영상대학원 · 영상문화콘텐츠 연구원(원장 김정환)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 플랫폼기관으로 3년 연속 선정되어 내년 1월까지 총 4억3천4백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경주캠퍼스 이대원 총장 취임



이대원 총장

모교 경주캠퍼스 이대원 총장 취임식 및 비전 선포식이 3월30일 학내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대원 경주캠퍼스 총장은 취임사에서 "동국대 경주캠퍼스의 발전목표를 지방 3대 사립 대학으로 정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참사람 양성대학을 비전으로 삼아 학교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전선포식에서는 동국참사람 양성기금으로 7억 원이 모금됐다.

경찰사법대학 출범 기념식



▲ 경찰사법대학 현판제막식이 혜화관 1층 현관 앞에서 있었다.

모교 경찰사법대학 출범 기념식 및 현판식이 4월8일 오전 혜화관 6층 F&B 스튜디오와 1층 현관 앞에서 각각 진행됐다.

경찰사법대학은 1963년 국내 최초로 개설되어 경찰간부 양성 등 형사사법 분야에서 한국 최고의 명성을 쌓아온 경찰행정학과를 금년에 확대 개편한 것으로 사회전반의 안전문제를 교육 및 연구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기념식 등에는 성타 법인이사장 스님, 한태식 총장, 전영화 총동창회장, 이윤호 초대 경찰사법대학장을 비롯한 경찰행정학과 전 • 현직 교수, 경찰사법관련기관 간부 1백여명이 참석했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선정

최대 6년간 106억원 규모 예산지원

모교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4월21일 발표한 '2016년도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에 선정되어 최대 6년간 106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SW 중심대학은 지난해 9월 1차로 8개 대학이 선정됐고, 이번에 2차로 모교를 비롯 국민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양대, 부산대, 서울여대 등 6곳이 추가됐다.

모교는 '인간과 사회를 풍요롭게 할 스마트 SW인력 양성'을 비전으로, '사회를 스마트하게 변화시키는 SW융합인'을 인재상으로 설정하고 'SW산업 맞춤형 참 SW인재' 양성에 힘쓴다.

창업선도대학 6년 연속 선정

모교가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2016년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에서 '일반형 창업선도대학'으로 4월20일 선정됐다.

모교는 2011년 최초 선정된 이후 6년 연속 창업선도대학에 이름을 올렸다. 2014년과 2015년에 이어 3년 연속으로 일반형 창업선도대학 중 '최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누적 정부지원금은 총 123억 6천만원을 넘어서게 됐다.

##동국대238호 2016.5.20 15:17 페이지12



| 동국대학교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싱글과 싱글을 맺어주는
싱싱결혼정보
초혼 · 재혼 상담 환영
02)423-1515, 588-2626
위치 : 가락시장역 3번 출구 앞
(제일오피스텔 10층, 1014호)
대표 여환준 (법학과 71卒)
* 동국가족 특별 우대
* 부담없는 가입비와 실속 성혼 후불제
신고(서울-송파-국내-14-0001)



##동국대238호 2016.5.20 15:17 페이지13

인쇄로 제4차 산업혁명을 활짝 열겠습니다.

본 보는 정보의 실크로드로 산업을 연결하고 개발(C&D)한다.

인쇄산업신문과 함께라면 이미 치열한 산업사회를 리드하는 것입니다.
정보에 목말라 있는 인쇄산업! 무한경쟁시대를 개척하는 유일신문!
32~44페이지 섹션전문신문 !
귀사의 성장과 함께 끝까지 신뢰와 의리를 지켜 나가겠습니다.
성장을 위한 필수과목 인쇄산업신문 이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빠른 언론! 국내 유일신문 인쇄산업신문 으로 귀사의
정보력을 배가 시키십시오. 그리고 오피니언이 되십시오.



구독 및 광고 문의 : (02) 2264 - 9791

대표 박 종 세 (본회 상무이사 · 경영 92학번)

신속한 뉴스, 다양한 정보, 깊이 있는 신문 www.korpin.com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 1가 89-1 금호트윈오피스텔 1동 702, 802호
전화 : (02) 2274-5168~9 / 팩스 : (02) 2263-9721

대표이사 하만장
Mobile. 010.5251.3705



연희택시 주식회사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788 Tel. 02) 2685-2751 Fax. 02) 2683-4385

화장품 OEM · ODM 전문 회사

"신뢰받는 사업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한 품목 한 품목 정성을 다해 귀사가 원하는 상품을
최고의 상품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스킨케어 전 라인 과 CC크림 , BB크림 과 같은
색조 제품의 선두 그룹



(주)미도화장품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 17번길 20
TEL 032) 578-3092~4 / +82.32.578.3092~4
FAX 032) 578-3095 / +82.32.578.3095
E-MAIL marielans@hanmail.net
http://www.midocosmetic.com/



대표 이 상 명
Mobile. 010-5361-7174

• 황태회관 | 대표
주소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황계리 눈마을길 19
전화 : 033) 335-5795

• 황태의 본고장 대관령의 명품!
농수산물 판매장 : 033) 336-5794

• 2018평창동계올림픽 | 고문

| 동국대학교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 동국대학교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욕 일 공 업

■ 건축 · 철골공사 ■ 소방 배관 제작
■ 선박구성부분업 ■ 육 · 해상 철물공사업

대표 강 병 중 (사대원 03入)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우박길 39-1 Tel. 054) 773-7812~3 Fax. 054) 773-7814
Mobile. 010-3573-4432 E-mail. yookilind@hanmail.net

SLP

은평SLP영어학당

www.eduslp.ac.kr

원장 김 미 행 (85/89 영문)

(03336)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161, BYC빌딩 5층
Tel. 02) 358-1230 Fax. 02) 356-2430
Mobile. 010-3386-8037 E-mail. photogenic92@gmail.com

NAVER 은평SLP영어학당 검색 동문자녀 장학제도 제공

##동국대238호 2016.5.20 15:17 페이지14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각종 회비와 기금은 동국발전을 위해 소중히 쓰이고 있습니다.

• 회비 · 기금 납부시 성명 · 입학년도 · 학과를 꼭 명시해 주십시오. (단위 : 만원)

회 비 국민은행 006001-04-237869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302-718184
(예금주 : 동국대학교총동창회)

금액 · 가나다 순

〈 2016년 1월 28일 ~ 2016년 5월 19일 접수분 〉

발전기금



송석환(64농경)
500만원

고문회비



이민휘(52정치)
100만원



전순표(53농학)
100만원



송석구(58철학)
100만원



원용선(59영문)
100만원



조희영(59경영)
100만원



송석환(64농경)
100만원



김희옥(68법학)
100만원

감사 회비



경하현성스님(72행원)
100만원



강영규(70경행)
100만원

부회장 회비



고길호(65경영)
100만원



김석만(89사대원)
100만원



김수창(65불교)
100만원



김애주(76영문)
100만원



김진하(71무역)
100만원



김태현(84불교)
100만원



남선모(76행정)
100만원



문한성(79법학)
100만원



박태권(66정외)
100만원



법타스님(67인철)
100만원



서승삼(71경제)
1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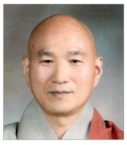
서영준(64법학)
100만원



서정호(71경영)
100만원



성영석(67경영)
100만원



성웅스님(91불원)
100만원



성월스님(92불원)
100만원



손학중(65농경)
100만원



심산스님(82선학)
100만원



심응석(72경행)
100만원



오혜경(98국원)
100만원



윤병관(82화공)
100만원



윤부성(61생물)
100만원



이병선(82사학)
100만원



이상현(54경제)
100만원



이승성(76체교)
100만원



이시우(91행원)
100만원



정진태(00행원)
100만원



최상철(64경영)
100만원



최석권(84법학)
100만원



해운스님(11불교)
100만원

지도위원 30만원

고광윤(61농학)
김관수(63행정)
김만진(90경원)
김명희(59사학)
김보열(57경제)
김성말(59경제)
김진용(58경제)
김창환(65경영)
김행남(61정치)
김흥우(60연극)
노병현(64사학)
류정우(58법학)
박복식(57법학)
박부엽(59상학)
박수철(53임학)
변태원(59법학)
서윤길(64불교)
성낙훈(82행원)
안종진(51영문)
양수성(61경영) 10
오만식(90언원)

부회장

장동락(70정외) 20
차문희(72정외) 50

상임이사 20만원

강병중(03사대원)
권정의(98대학원)

유영수(62행정)
윤용숙(93불원)
이광세(86경원)
이능희(60상학)
이명용(60정치)
이윤성(59법학)
이점구(96산원)
이진호(64농경)
이채옥(60정치)
이현중(59영문)
인중식(53경제)
조홍기(58영문)
최병식(59불교)

김광철(76경행)
김사성(69국교)
김상래(78경영)
김선정(72행정)
김진수(78행정)
김창기(95경원)
류복수(95사대원)
박종세(92경영)
오재관(67농경)
윤두옥(59생물)
윤정민(08한의)
이강욱(00경영)
이기영(78경제)
이현호(66법학)
장세균(67철학)
정연찬(02사대원)
조수길(87법학)
진각화봉스님(88한의)
최성영(83경행)
황동휘(79행정)

강태진(84불교)
강호균(84행정)
강희석(97호텔경영)
구학모(90행원)
김규태(46영문)
김병우(65응생)
김인순(80경원)
김태용(91행원)
나채문(99산원)
남궁철(81회계)
박대은(97사대원)
박명준(71건축)
박원호(65식공)
백재구(76식공)
박정훈(80사회)
박천운(67경행)
박흥서(68통계)
백경선(80불교)
백대운(70전자)
성순경(원덕)(93불원)
신동욱(82무역)
신형철(77체교)
양경직(65농경)

오근옥(72회계)
오재환(61정치)
우진스님(03대학원)
우철희(89경제)
윤천수(72정외)
이갑채(00사대원)
이권하(76식공)
이병노(86경행)
이상구(81인철)
이승복(85경행)
이영옥(84무역)
이윤영(71도목)
이인배(92경원)
이제근(69경제)
이천기(64농경)
이철종(77토목)
이춘섭(78체교)
이형우(87경원)
임영수(71무역)
임 준(81체교)
전찬우(84화학)
조석규(68도공)
조시승(69경제)

조원상(74전자)
지종스님(07한국음악)
진병길(84국사)
차연신(85연영)
차형천(72정외)
최준영(92산원)
최지섭(69경제)
최해수(05사대원)
최해수(05사대원)
하진수(61정치)
하창호(65농학)
학산스님(07불문원)
한동식(99사대원)
홍성하(65응생)
황규명(65식공)
황진택(95행원)
허남태(80환경)

연회비 3만원

강기범(81회계)
강덕선(64경제)
강연희(04국제)

강용산(01경영)
강익수(77건축)
강천규(69경제)
강춘매(97불원)
강태호(75조경)
경국사
경규명(64경제)
고담스님(09불문원)
고옥자(79영문)
고창환(64경영)
고천주(68자동제어)
고형종(64국문)
고희신(86의학)
곽상춘(90언원)
곽종학(57국문)
광덕사
구룡사
구자면(84경행)
권순일(62국문)
권오춘(59영문)
권태상(77국교)
길인호(84경제)
김경미(98불원)

김경석(58경제)
김경석(78불교)
김계현(56경제)
김광덕(71영문)
김광영(59경영)
김교남(61불교)
김교식(75농학)
김기권(59불교)
김기포(73경제)
김남호(03체교)
김농주(83경행)
김대선(85선학)
김대철(69정외)
김동원(60정치)
김동찬(78식공)
김동철(71건축)
김동희(99경영)
김무권(73화공)
김문욱(65경제)
김문자(60수학)
김방근(68경영)
김병택(71대학원)
김보해(10문예창작)

김부동(88교원)
김상규(98국원)
김상균(82경행)
김상기(94불원)
김상철(79화공)
김상호(81행원)
김성호(93행원)
김소연(99연극)
김수열(82화공)
김순제(52경제)
김승연(04산업)
김시현(60입학)
김신복(86물리)
김양태(85무역)
김영근(71경행)
김영호(99경원)
김영호(74회계)
김영환(67위생)
김용대(62사학)
김용삼(59경제)
김용설(90화학)
김용성(93교육)
김용환(74무역)

김용흥(64경행)
김원열(94행원)
김유진(87연영)
김윤기(64입학)
김윤남(92경원)
김윤상(65정외)
김윤태(63법학)
김은겸(86농학)
김은희(90통계)
김익배(79무역)
김익세(87산공)
김인범(85법학)
김인술(88경원)
김인식(64경제)
김인태(57영문)
김재호(08사대원)
김재희(75화학)
김정용(82회계)
김종민(69공경)
김종환(61불교)
김주갑(60법학)
김 준(65통계)
김중대(75경원)

##동국대238호 2016.5.20 15:18 페이지15

김지권(82영문) 김직렬(09사대원) 김진근(78토목) 김진영(79전자) 김춘수(81화공) 김택유(79경제) 김판근(66경행) 김한기(03행원) 김한성(85한의) 김해동(91언원) 김홍렬(59경영) 김홍부(63상학) 김흥식(64임학) 김희동(00경영) 김희배(81공경) 김희환(58임학) 나언표(56경제) 남계동(64임학) 남금광(63상학) 남시혁(54정치) 노수길(65경영) 노창호(02문예창작) 도상열(54수학) 도안사 도윤호(90행원) 류관주(78농학) 맹주옥(83행정) 명선스님(74행원) 무량스님(95불원) 무이스님(05불문원) 문공식(66연영) 문대성(56정치) 문병천(73동계) 문송국(81회계) 문윤희(56국문) 민병진(57정치) 민병천(82공경)

민수영(59정치) 민웅식(57경제) 박광래(58경제) 박기룡(01불원) 박노훈(72사교) 박덕준(88경영) 박동훈(03경원) 박래학(61경제) 박부남(98불원) 박성무(65정외) 박성원(97북한) 박승오(84법학) 박영길(62화학) 박윤식(79사회) 박윤태(64상학) 박장서(57사학) 박재원(86대학원) 박정민(79불교미술) 박종철(98문원) 박준근(08행원) 박준일(95회계) 박준호(83회계) 박창규(87법학) 박태원(65국문) 박훈(73경원) 박희선(56화학) 방재영(99정보) 배봉규(81경영) 배용성(64경제) 백길웅(85인철) 백련사 백석기(62경제) 백옥미(80승가) 백용웅(82행원) 법륜사 변승현(00경원) 변윤섭(65정외)

변종근(60법학) 변훈길(71행원) 부흥사 불영사 삼불사 삼성암 서거원(60경제) 서광익(85전기) 서석일(00사대원) 서창식(60상학) 설경환(05대학원) 설안스님(00대학원) 성기호(61상학) 성불사 성심사 손규현(85경원) 손락상(84행정) 손창우(86전산) 손창학(81건축) 손해순(83불교) 손호목(79회계) 송기훈(65경제) 송윤용(84행원) 송인재(88사회) 송재관(64행정) 송재신(58법학) 송준호(79농학) 송진호(81경영) 송호택(82경영) 신남수(87경원) 신석희(60사학) 신영옥(95불원) 신영철(57국문) 신영철(57국문) 신영태(81무역) 신용현(80한의) 신태환(63법학)

신호중(76통계) 10 심광보(58물리) 심규선(61물리) 심기열(81회계) 심명호(67응생) 심용기(97영문) 심재호(83법학) 안군선(85회계) 안길준(85행정) 안재권(78토목) 안한상(66국문) 안현동(87경원) 양용자(03불원) 양원모(05사대원) 여은규(55영문) 여인근(58임학) 염동훈(58법학) 오건석(64경영) 오근옥(72회계) 오명석(88경원) 오상진(81법학) 오세청(60상학) 오희승(92영문) 왕산사 용화사 우현의(10불원) 운문사 원경스님(95불원) 원명스님(67인철) 원영상(62경제) 원종구(68경제) 원철스님(01불문원) 월정사 위경용(68식공) 유병준(66경제) 유상갑(64법학) 유영식(55법학)

유지남(70농학) 유지선(72행정) 유호열(53농학) 유황찬(74정외) 유희민(07행원) 윤석재(70경영) 윤영길(61상학) 윤영보(63통계) 윤이웅(86경원) 윤일현(84경영) 윤종육(81행원) 윤찬희(78화공) 은해사 6 이건선(65입학) 이경우(58경제) 이경재(94불원) 이관택(75무역) 이광복(80회계) 이광섭(65상학) 이광열(89행원) 이규석(84회계) 이규현(61경제) 이균형(59정치) 이근수(98북한) 이기학(82경영) 이길자(74승가) 이낙호(92행원) 이남영(94행원) 이대수(92행원) 이도열(88산공) 이동형(76공경) 이련(64국문) 이명규(70수교) 이범주(78식공) 이범주(78식공) 이범찬(82행원) 이병길(67화학)

이상윤(71건축) 이상훈(77화공) 이석봉(86행원) 이석준(01경제) 이석준(55정치) 이선주(90의학) 이성규(89행원) 이성룡(58경제) 이성철(94경영) 이승박(79한의) 이승희(92행정) 이영규(73수학) 이영길(99행원) 이영범(82농학) 이영재(81법학) 이영찬(72농학) 이영희(01불원) 6 이옥동(82영문) 이용국(74경영) 이원생(61법학) 이은섭(58경제) 이은집(79교원) 이인용(88무역) 이일환(87행원) 이장걸(56사학) 이장희(61농학) 이재봉(65물리) 이재술(77행정) 이재원(58법학) 이점원(72미술) 이정기(86행원) 이정진(81건축) 이정호(74경행) 이종근(95경제) 이종서(71법학) 이종찬(56국문) 이종호(54법학)

이주환(55정치) 이 준(56생물) 이준호(74화공) 이중량(55정치) 이진혁(75화학) 이창근(83농경) 이철희(79전기) 이춘삼(82회계) 이춘우(78농학) 이태한(66경영) 이학설(56법학) 이현준(00전기) 이홍우(62농경) 이환균(67도공) 이환근(82수교) 이 훈(82수학) 인형식(61영문) 임경섭(57사학) 임금동(81경영) 임영수(71무역) 임원갑(01불원) 임인규(78승가) 임일남(79교원) 임재천(74영문) 임종철(79회계) 자비사 장명사 장봉수(10대학원) 장봉기(87교원) 장석기(58정치) 장안사 장익선(71물리) 장해수(76경영) 장형순(85전기) 전병옥(04법학) 전선우(84경제) 전수식(56법학)

전수오(02경영) 전요환(91경행) 전재원(04기공) 정광용(78농학) 정구인(62국문) 정금연(72행원) 정동민(67경영) 정상용(69정외) 정상학(94불원) 정상훈(96법학) 정선호(06경원) 정용일(70법학) 정유식(86법학) 정윤식(69법학) 정일주(96문원) 정일준(71경제) 정춘덕(55법학) 정태수(72행원) 정판섭(68경제) 정 현(91화학) 정현정(91행정) 정혜진(07사회복지) 정호영(78건축) 정홍락(07대학원) 정홍진(95불원) 조만수(70경영) 조숙영(85국사교육) 조신래(87체교) 조영래(89일문) 조정현(01교원) 조진권(06사대원) 조통달(94문원) 조한석(06경영) 조현철(77화공) 주정호(92회계) 지용진(82경행) 진만스님(77승가)

진성기(99행원) 진성스님(76승가) 철은스님(86교원) 청운스님(93불원) 최경수(92회계) 최광수(82화공) 최근수(93산원) 최낙석(59경제) 최동배(04산원) 최동욱(76화공) 최동지(75토목) 최무정(80행원) 최민석(03전자) 최병주(61불교) 최본식(62상학) 최봉석(92정외) 최상기(74전산) 최수영(73행원) 최영안(63국문) 최용근(74임학) 최재일(96행원) 5 최종태(57법학) 최중열(56정치) 최진규(00행원) 최홍규(61연극) 최효식(64사학) 최흥길(58경제) 하림스님(88선학) 하문수(55경제) 하혜순(92불원) 한권규(82건축) 한규동(79행원) 한기장(97경영) 한도수(58경제) 한영수(76수학) 한예석(57경제)

한주영(87불교) 함한진(96정보) 허 증(92행원) 현정스님(97불원) 현진스님(83선학) 혜안스님(96선학) 호국지장사 홍면유(68자동제어) 홍승하(70농학) 홍종관(68경영) 황긍원(68공관) 황병향(03불문원) 황수경(00대학원) 황용인(85교육) 황윤철(95정보) 황종환(96행정) 황태영(83행원)

특별회비

ROTC1기 동기회 (회장:박대혁) =10만원
고대훈(91행정) =6만원
김종필(82정외) =3만*5회차
동명사=2만*26회차
오선호(84영문) =1만*23회차 =3만*6회차
전병구(99영문) =20만원
홍성군(87전기) =6만원

'2015동국인의 밤' 협찬 동문


전영화 총동창회장
300만원


전순표(53농학)
100만원


홍파스님(63불교)
100만원


한우삼(63농학)
100만원


김진문(64경영)
100만원


서영준(64법학)
100만원


박종수(72식공)
100만원


홍종표(94행원)
100만원


오정석(72농학)
100만원상당 주류

- 법타스님(67인도철학과, 행복선원 원장)= 50만원
- 건축공학과동창회(회장=하한기)= 50만원
- 경주직할동창회(회장=이종록)= 50만원
- 사회과학대학원동창회(회장=김석만)= 50만원
- 81학번동기회(회장=김종찬)= 50만원
- 지종스님(07한국음악, 영명사)= 30만원
- 김태현(84불교학과, 법무법인 창조 실장)= 20만원

축하화환

- 동국대학교 총장 한태식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총장 이계영
-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성문
-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김필건
- 112 ROTC 총동문회 회장 김환진
- 불교대학원 총동창회 회장 임원갑
- 동국대라이온스클럽 회장 홍종표
- 부산동고 총동창회장(82학번) 이상민
- 서초 강남지부 회원일동
- 82학번 동기회 회원일동





##동국대238호 2016.5.20 15:18 페이지16

모교 사태에 대한 총동창회 입장

우리 모교 동국대학교는 개교 110주년의 전통과 역사, 학문적 권위를 인정받은 국내 명문 사학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해오고 있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 학내 분규사태로 인한 갈등과 대립이 격화돼 전통이 무너지고 모교의 위상이 실추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교를 사랑하는 총동창회 역시, 한때 양분된 상태에서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모교 사태를 미온적으로 바라보거나 방관해 왔음을 자성하며, 이제 단일 동창회로서 현 사태를 외면하는 것은 더 이상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4월 27일 상무위원회를 열고 총동창회가 그 해결의 중심에 서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작금의 모교 사태를 놓고 잘잘못을 따지자면 어떤 해결의 단초도 마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 과오를 통절하게 성찰하는 가운데 모교 발전을 위한 공통분모를 찾아 서로 화해하고 단합하고 협력하면서 새롭게 명문사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책임을 공감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모교 발전이 재학생의 자긍심과 동문의 사회적 신분 상승의 동력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모교 개교기념식일인 5월 6일 이전에 가시적인 실행조치가 이루어지고, 나아가 이 시간이후 모든 분규행위를 중단하기를 촉구하면서 학교당국, 교수협의회, 총학생회, 그리고 학교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학교당국은 대화합 차원에서 신속하게 교수•직원에 대한 징계 철회와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들에 대한 고소 건을 취하해 주길 바랍니다.

이는 학교 당국의 입장을 앞세우기 보다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대화합을 위한 실천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비록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교수•직원과 학생들이 있다고 해도 서로 경청하고 소통하면 오해가 풀릴 것입니다.

둘째, 교수협의회도 학교당국과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현재 동국대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총장선출제도의 개선, 그리고 이사회의 구조개선 등의 문제는 전체 구성원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총동창회도 좋은 개선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교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들에게도 요구합니다.

학교당국이 진정성있는 조치를 취한다면 더이상 과격한 행동이나 대결을 지양하고 학교발전을 위해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적인 요구보다는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요구를 합리적으로 제안하여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는 지혜를 모아주길 당부합니다.

넷째, 학교법인 이사회 또한 학교 갈등 해결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동국대학교는 조계종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25만 동문, 교수, 학생 모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이사회가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특히 동문을 정상적으로 대표하는 인사가 이사로 포함돼야 합니다.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과거의 전통은 동문대표 1인이 이사회에 참여해 왔습니다. 이해관계를 떠나 진심으로 모교를 사랑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를 동문대표로 이사회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동국대학교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과거의 시비를 던져버리고 대화합의 기치 아래 하나가 돼야 합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한발씩만 물러나서 동국의 발전을 위한 진정성을 갖는다면 현재의 갈등은 모두 해소될 것으로 믿습니다.

때마침 5월은 우리 동국대학교에게 개교기념일과 부처님오신날이라는 두 개의 축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동국의 희망찬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총동창회가 대화합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대화합의 길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2016년 4월29일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전 영 화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대화합 제안에 대한
교무위원 입장문

지난 4월 29일(금) 동국대학교 총동창회(회장 전영화)가 최근의 학내 갈등상황을 우려하며 모든 구성원의 대화합을 촉구한 것에 대해 우리 교무위원 일동은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학교당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과거의 시비를 모두 덮고 한발씩 물러나서 진정성을 갖고 동국의 발전을 위해 나아가자는 총동문회의 호소는 학교운영을 담당하는 교무위원에게도 커다란 힘이 됐습니다.

이번 주 개교110주년 기념식과 부처님오신날 행사가 25만 동문, 교직원, 학생이 하나가 되어 희망찬 새로운 동국을 열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대화합의 기치 아래 동국대학교 구성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동국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교무위원 일동은 총동창회가 촉구한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천명합니다.

첫째. 학내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구성원 간의 대화를 적극 추진한다.

둘째. 교수와 직원 징계 건은 총동창회의 제안을 조건없이 수용하며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셋째. 대화합 차원에서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 고소 건은 취하한다.

2016년 5월 2일

동국대학교 교무위원 일동

총동창회 입장문에 대한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입장

지난 4월 29일, 우리학교 개교 110년을 앞두고 총동창회는 학교당국과 교수협의회, 총학생회 그리고 학교법인 이사회를 향한 화해와 협력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2014년 총장선출과정에서 비롯된 학내 갈등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 지난날의 방관과 외면을 반성하고 문제 해결의 중심에 서겠다는 총동창회의 결의였습니다.

총학생회 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에 대한 학교 당국의 고소 건을 비롯한 학내 비정상적인 상황을 상호존중과 협력의 대화로 해결하자고 제안해 온 총동창회의 입장을 존중합니다.

또한 총동창회 입장 직후 이뤄진 5월 2일 구성원 간 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교수 · 직원 · 학생에 대한 징계와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학교당국의 응답도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어서 학교 모든 구성원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자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총학생회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논의 테이블 구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논의테이블의 주제는 학내 교육환경 개선 / 학생준칙 폐기를 비롯한 학생자치 발전과제 / 총장선출 및 이사회 구조의 민주적 발전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학교발전을 위해 대화 주제에 어떤 제한도 두어선 안 될 것입니다.

2016. 05. 04

동국대학교 총학생회
운영위원회